

## 핑퐁 외교와 핫도그 외교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외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맛있고 싹 중국산 산둥(山東)식 월병(月餅)을 선물 받았다. 월병은 매실, 호두, 잣과 건포도 등을 으깨고 섞어 구운 밀가루 과자다. 정초 때는 폭죽(爆竹)이고 월병하면 중국 중추절의 대명사다. 중국은 땅이 넓고 음식도 제각각이다. 산둥요리, 허난(湖南)요리, 쓰촨(四川)요리, 푸젠(福建)요리, 광둥(廣東)요리, 장쑤(江蘇)요리, 저장(浙江)요리, 안후이(安徽)요리 등 8대 요리가 있다.

세계적으로 음식이 발달한 나라는 중국과 프랑스다. 풍요로운 자연조건 외에 독재와 귀족문화가 발달한 것도 이유 중 하나라는 설이 있다. 외교전쟁 속에는 세계 4강국의 이해가 맞부딪치고 남·북한의 사황이 달려 있다. 새롭게 세계 강자로 솟아오른 중국은 과연 한국에 있어 무엇인가? 거대한 대륙국가 옆에 붙어 있는 한국 자체가 부담이고 또 기회다.

한·중 수교 이래 수십 년 아니 수천 년간 차이나 쇼크는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을 알아야 한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14억 인구 세계 최대 인구강국이다. 국토의 면적은 한국의 약97배 이상이다. 23개 성과 5개 자치주 상당수가 한국보다 크고 인구도 많다. 넘쳐나는 인력 덕분에 세계 최고 경제력을 가진 미국과 비견될만한 경제대국이다.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라면 단연코 ‘성경’이다. 그 다음은 놀랍게도 20세기 중화인민공화국을 건설한 ‘마오쩌둥 어록’이다. 다분히 중국을 견제하는 메시지이지만 ‘제로섬의 저자’ 레스터 서로우의 경고는 의미심장하다. “역사상 자주 그랬던 것처럼 한국은 다시 한번 거대한 이웃국가 중국과 일본에 끼어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됐다.” 그렇다고 해서 오랜 세월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인 이른바 쌍둥이 적자를 타국에 전가해 온 미국조차 마냥 편한 상대만은 아니다.

‘핑퐁외교’는 한국전쟁 이후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 온 중·미 관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갖고 왔다. 미국은 당시 ‘철의 장막’ 소련과 ‘죽의 장막’ 중국사이의 분쟁에 편승해서 중국과 대화 채널을 만들어야 했다. 그래서 1971년 4월10일 미국탁구선수팀이 중공을 방문, 역사적인 ‘핑퐁외교’가 시작됐다. 이윽고 1972년 2월21일 당시 닉슨 전 미국대통령은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중국

을 방문, ‘상하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양국이 아태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후 미·중 관계는 급진전 1978년 12월 미국은 ‘자유진영’ 타이완과 국교를 단절하고 1979년 1월1일 중국과 수교했다. 당시 닉슨의 중공방문 발표에 한국의 박정희 전대통령과 국민들은 경악했다. 6·25전쟁 중 중공인민군의 인해전술로 1·4후퇴를 겪은 한국이 아니던가. 그런 중국과 한국은 1992년 타이완을 버리고 수교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소식에는 북한의 고(故) 김일성 전 국가주석이 경악했다. “중국과 남조선관계에 대해 중국에서 결정했으니 그렇게 하라.” 북한의 김 전 주석의 체념이다. 장팅옌(張庭延) 초대주한 중국대사(1992-98)의 회고다. 2003년 후진타오 중국 총서기는 파월 전 미국국무장관과 파월의 고향인 뉴욕 브롱크스에서 핫도그를 사먹자는 등 외교수사로 이른바 ‘핫도그 외교’를 진행했다. 2005년 9월초 중·미 정상회담을 갖은 미국워싱턴의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열린 후진타오 리셉션 초대장은 몇 배 프리미엄이 붙었다. 중국의 당나라, 원나라 시절 황제가 로마를 방문한 것과 같다고나 할 것이다. 사실 한국은 이제 약소국이 결코 아니다. K-문화로 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있고 세계 230여 개국 중 GDP 12위 국가이며 교역량 13위를 자랑하는 나라다. 인구도 5000만 명 29위권 국가다. 이제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작은 변방국가 아니다.

같은 반도국가 이태리와도 판판이다. 주변국가가 수십 개로 쪼개진 이태리는 힘을 쓸데없이 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4강국 사이에서 한국은 늘 힘겹다.

####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3월 29일 (금)	4월 1일 (월)	4월 2일 (화)	4월 3일 (수)	4월 4일 (목)
미	달	러	(USD)	1346.80	1347.40	1347.10	1353.00	1349.10
일	본	엔	(JPY)	889.48	890.11	888.32	892.69	889.88
영	국	파운	드 (GBP)	1700.34	1701.36	1689.73	1701.19	1707.08
캐	나	다 달	러 (CAD)	994.83	995.71	992.19	997.38	997.34
홍	콩	달	러 (HKD)	172.10	172.18	172.14	172.82	172.32
중	국	원	(CNH)	185.75	185.63	185.68	186.13	185.92
유	로	화	(EUR)	1452.93	1453.44	1446.25	1456.84	1462.02
호	주	달	러 (AUD)	877.44	879.58	873.59	881.41	885.95
싱	가	폴 달	러 (SGD)	997.67	998.81	995.86	1001.18	1000.96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84.56	285.19	284.86	284.57	283.72